

# 2022년 2학기 물리학 II

Byeong-woo Han,<sup>1,\*</sup> Hui-Jae Lee,<sup>1,†</sup> and 김현철<sup>‡1,§</sup>

<sup>1</sup>*Hadron Theory Group, Department of Physics,  
Inha University, Incheon 22212, Republic of Korea*  
(Dated: Autumn Semester, 2022)

## Mock test 1

**1번 풀이 :** 쿨롱의 법칙에 의하면 두 전하 간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

$$F = \frac{1}{4\pi\epsilon_0} \frac{q_1 q_2}{r^2} \quad (1)$$

이다.

**2번 풀이 :**

- (1) 전하에는 +전하와 -전하 총 2종류가 있다.
- (2)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두 전하를 잇는 직선 상에서 작용한다.
- (3) 쿨롱의 법칙에 의해 전기력은 전하 사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한다.
- (4) 쿨롱의 법칙에 의해 전기력은 전하량의 곱에 비례한다.
- (5) 중첩의 원리에 의해 둘 이상의 전하가 존재할 때 각 전하에 의한 전기력을 합하여 합력을 구할 수 있다.
- (6) 전기장 벡터  $\vec{E}$ 와 전위  $V$ 는

$$\vec{E} = -\nabla V \quad (2)$$

이고 전기력은 전기장에 평행하므로 전기력은 등전위선의 접선 방향에 수직하다.

따라서 옳은 답은 (1), (3), (4), (5)이다.

**3번 풀이 :**

- (ㄱ) 도체판 사이 전기장은  $x$ 축에 평행하고 -극으로 대전된 도체판을 향한다. 따라서  $A$ 에서  $B$ 로 전하를 이동시키면 +로 대전된 도체판에 대해 평행하게 멀어지므로 전하의 전기적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다. 즉, 전기 위치에너지의 변화량의 부호는 -이다.
- (ㄴ)  $C$ 에서  $D$ 로 전하를 이동시키면 +로 대전된 도체판과의 거리가 변하지 않으므로 전하의 전기적 위치 에너지가 변하지 않는다. 즉, 전기 위치에너지의 변화량의 부호는 0이다.
- (ㄷ)  $B$ 에서  $D$ 로 전하를 이동시키면 +로 대전된 도체판에 가까워지므로 전하의 전기적 위치 에너지는 증가한다. 즉, 전기 위치에너지의 변화량의 부호는 +이다.

**4번 풀이 :** 계의 전기 위치에너지는 거리가 무한대인 지점으로부터 전하들을 끌어올 때 필요한 에너지로 정의한다. 아무 전하도 없는 공간에서 전하를 끌어오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0이다. 그리고 다른 전하를 또 끌어오는데 필요한 에너지  $E_1$ 는

$$E_1 = - \int_{\infty}^d k \frac{q^2}{r^2} dr = \left( k \frac{q^2}{r} \right) \Big|_{\infty}^d = k \frac{q^2}{d} \quad (3)$$

<sup>‡</sup> Office: 5S-436D (면담시간 매주 수요일-16:15~19:00)

<sup>\*</sup>Electronic address: 12191964@inha.edu

<sup>†</sup>Electronic address: hjlee6674@inha.edu

<sup>§</sup>Electronic address: hchkim@inha.ac.kr

이다. 이제 마지막 전하를 끌어오는데 필요한 에너지  $E_2$ 를 구해보자. 이미 전하 2개가 있으므로

$$E_2 = -2 \int_{\infty}^d k \frac{q^2}{r^2} dr = 2k \frac{q^2}{d} \quad (4)$$

이고 이 계의 전기 위치에너지  $E$ 는 전하들을 끌어오는데 필요한 에너지들의 합이므로

$$E = E_1 + E_2 = 3k \frac{q^2}{d} \quad (5)$$

이다.

**5번 풀이 :** 가우스 법칙을 수식으로 정리하면

$$\int \vec{E} \cdot d\vec{a} = \frac{q}{\epsilon_0} \quad (6)$$

이다. 좌항은 폐곡면을 지나는 전기선속의 합이고 우항은 폐곡면 내부에 존재하는 총 전하량에 대한 항이다.

**6번 풀이 :** 전기장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 가우스 법칙을 이용하자. 가우스 곡면을 반지름이  $r$ 인 구의 표면으로 하면 가우스 곡면 내부 총 전하량  $q$ 는 전체 전하량 중 가우스 곡면 내부 부피에 존재하는 전하량에 해당하므로

$$q = Q \frac{\frac{4}{3}\pi r^3}{\frac{4}{3}\pi R^3} = Q \frac{r^3}{R^3} \quad (7)$$

이고 구 대칭성에 의해 미소 면벡터와 전기장의 방향이 일치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.

$$\int \vec{E} \cdot d\vec{a} = |\vec{E}| \int da = 4\pi r^2 |\vec{E}| \quad (8)$$

따라서 전기장의 크기  $|\vec{E}|$ 는

$$|\vec{E}| = \frac{Qr}{4\pi\epsilon_0 R^3} \quad (9)$$

이다.

**7번 풀이 :** 전기장의 크기는 각 도체 평면에 의한 전기장의 크기의 합이다. 무한히 넓은 도체 평면에 의한 전기장은 거리에 무관하게 일정하므로 도체 평면 1과 2에 의한 전기장은 서로 상쇄된다. 도체 평면 3에 의한 전기장  $E$ 는

$$E = \frac{\sigma}{2\epsilon_0} \quad (10)$$

이고 이것이 평면 2와 3 사이 영역에서의 전기장의 크기이다.

**8번 풀이 :** 평행판 축전기에 충전된 전하량을  $Q$ , 축전기 사이 전위차를  $V$ 라 하면 전기용량  $C$ 는

$$Q = CV, \quad C = \epsilon_0 \frac{A}{d} \quad (11)$$

이다.  $A$ 는 평행판 축전기의 면적이고  $d$ 는 평행판 축전기의 간격이다. 평행판 축전기의 전기적 위치에너지  $U$ 는

$$E = \frac{1}{2} QV \quad (12)$$

이다. 거리  $d$ 를 4배로 늘릴 경우의 전기용량, 전위차, 전기적 위치에너지를 각각  $C'$ ,  $V'$ ,  $U'$ 라고 하자. 거리를 늘리더라도 면적과 전하량은 변화가 없으므로 전하  $Q$ 와 전하밀도  $\sigma$ 는 일정하다.  $C'$ ,  $V'$ ,  $U'$ 는

$$\begin{aligned} C' &= \epsilon_0 \frac{A}{4d} = \frac{1}{4} C \\ V' &= \frac{Q}{C'} = 4 \frac{Q}{C} = 4V \\ U' &= \frac{1}{2} QV' = 4 \left( \frac{1}{2} QV \right) = 4U \end{aligned} \quad (13)$$

이다. 따라서 전기용량은  $\frac{1}{4}$ 배, 전위차는 4배, 전하밀도는 1배, 저장된 에너지는 4배가 된다.

**9번 풀이 :** 우선 줄의 법칙을 이용해 전구의 저항  $R$ 을 구하자. 전구에 걸린 전압을  $V$ , 전구가 소모하는 전력을  $P$ 라고 하면 줄의 법칙에 의해

$$P = \frac{V^2}{R} \implies R = \frac{V^2}{P} = \frac{(220 \text{ V})^2}{440 \text{ W}} = 110 \text{ } \Omega \quad (14)$$

전구의 저항은  $110 \text{ } \Omega$ 이다. 전구에 전압  $110 \text{ V}$ 를 연결하면 전구가 소모하는 전력  $P$ 는

$$P = \frac{V^2}{R} = \frac{(110 \text{ V})^2}{110 \text{ } \Omega} = 110 \text{ W} \quad (15)$$

와 같다. 따라서 전구는 전력  $110 \text{ W}$ 를 소모한다.

**10번 풀이 :** 점전하  $+q$ 가 정지해있으므로 점전하에 작용하는 합력은 0이고 위쪽으로 전기력, 아래쪽으로 중력이 작용한다. 점전하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 $F_q$ , 중력을  $F_g$ 라고 하면 점전하에 대한 운동방정식으로부터

$$\sum F = F_q - F_g = qE - mg = 0 \implies E = \frac{mg}{q} \quad (16)$$

를 얻는다.  $E$ 는 도체판 사이에 생성되는 전기장의 크기이다. 도체판 사이의 간격을  $d$ 라 하면 전위차  $V$ 는

$$V = Ed \quad (17)$$

로 주어지므로 식 (16)를 대입하면

$$V = \frac{mg}{q}d \quad (18)$$

와 같이 쓸 수 있다.  $m = 4 \times 10^{-13} \text{ kg}$ ,  $q = 4.9 \times 10^{-18} \text{ C}$ ,  $d = 2 \times 10^{-2} \text{ m}$ 이므로  $V$ 는

$$V = \frac{(4 \times 10^{-13} \text{ kg})(9.8 \text{ m/s}^2)}{4.9 \times 10^{-18} \text{ C}}(2 \times 10^{-2} \text{ m}) = 1.6 \times 10^4 \text{ V} \quad (19)$$

이다.

**11번 풀이 :** 두개의 평행한 도선에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 도선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 $F$ 는

$$F = \frac{\mu_0 I^2}{2\pi d} \quad (20)$$

이다.  $d$ 는 도선 사이 간격이다. 두 도선에 흐르는 전류량이 각각 2배로 늘어나면 힘은 4배로 증가한다. 따라서 도선에 작용하는 힘의 변화가 없으려면 도선 사이 거리가 4배로 늘어나야 한다.

**12번 풀이 :** 원형도선의 중심에서는 직선도선에 의한 자기장의 크기  $B_1$ 과 원형도선에 의한 자기장의 크기  $B_2$ 가 모두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두 자기장을 모두 구한 후 합해주어야 한다. 원형도선의 반지름은  $R$ 이고 원형도선의 중심은 직선도선으로부터  $R$ 만큼 떨어져 있으므로 직선도선에 의한 자기장의 크기  $B_1$ 은

$$B_1 = \frac{\mu_0 i}{2\pi R} \quad (21)$$

이고 원형도선에 의한 자기장의 크기  $B_2$ 는

$$B_2 = \frac{\mu_0 i}{2R} \quad (22)$$

이므로 총 자기장의 크기  $B$ 는

$$B = B_1 + B_2 = \left(1 + \frac{1}{\pi}\right) \frac{\mu_0 i}{2R} \quad (23)$$

이다.

**서술형 1번 풀이 :**

(가) 암페어의 법칙은 임의의 폐곡선을 따라 흐르는 자기장은 폐곡선 내 전류의 합과 비례한다는 법칙이다.

$$\int \vec{B} \cdot d\vec{l} = \mu_0 I \quad (24)$$

폐곡선을 직선 도선의 중심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 $r$ 인 원으로 잡자.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  $\vec{B}$ 는 폐곡선을 따르는 미소길이  $d\vec{l}$ 과 평행하게 생성되므로 좌항은

$$\int \vec{B} \cdot d\vec{l} = B(r) \int d\vec{l} = 2\pi r B(r) \quad (25)$$

이 되고 폐곡선 내부에 전류는  $I$ 만큼 흐르므로 앙페르 법칙에 의해

$$2\pi r B(r) = \mu_0 I \implies B(r) = \frac{\mu_0 I}{2\pi r} \quad (26)$$

을 얻는다.

(나) 폐곡선의 반지름이  $R$ 보다 작으므로 이 경우 폐곡선 내부에 흐르는 전류  $I'$ 는

$$I' = \frac{\pi r^2}{\pi R^2} I = \frac{r^2}{R^2} I \quad (27)$$

이고 앙페르 법칙으로부터

$$2\pi r B(r) = \mu_0 I' = \frac{r^2 \mu_0 I}{R^2} \implies B(r) = \frac{r \mu_0 I}{2\pi R^2} \quad (28)$$

를 얻는다.

(다) 도선의 길이를  $L$ 이라 하고 도선의 전류가  $z$ 방향에 평행하게 흐르며 두 도선이 가정하자. 두 도선사이에 작용하는 힘  $\vec{F}$ 는 다음과 같다.

$$\vec{F} = I \vec{L} \times \vec{B} \quad (29)$$

위에서 구한 도선 외부의 자기장  $\vec{B}$ 는

$$\vec{B} = \frac{\mu_0 I}{2\pi r} \hat{\phi} \quad (30)$$

이다. 다른 도선은 전류가 반대방향으로 흐르므로,  $\vec{L}$ 은

$$\vec{L} = -L \hat{k} \quad (31)$$

이다. 이 도선이  $x = d$ 에 있다고 가정할때, 자기장의 방향은  $y$ 방향이므로

$$\vec{B}(d) = \frac{\mu_0 I}{2\pi d} \hat{j} \quad (32)$$

이다. 따라서 도선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

$$\begin{aligned} \vec{F} &= I \vec{L} \times \vec{B} \\ &= -IL \hat{k} \times \frac{\mu_0 I}{2\pi d} \hat{j} \\ &= -\frac{\mu_0 I^2 L}{2\pi d} \hat{k} \times \hat{j} \\ &= \frac{\mu_0 I^2 L}{2\pi d} \hat{i} \end{aligned} \quad (33)$$

이다. 작용 반작용의 법칙 때문에 다른 도선에 작용하는 힘은,

$$= -\frac{\mu_0 I^2 L}{2\pi d} \hat{i} \quad (34)$$

이다.

### 서술형 2번 풀이 :

(가) 가우스 법칙은 수식으로

$$\oint \vec{E} \cdot d\vec{a} = \frac{q}{\epsilon_0} \quad (35)$$

와 같이 쓸 수 있다.

(나) 가우스 곡면을 원통 모양의 도체와 중심축을 공유하고 반지름이  $r$ 인 원통으로 잡자. 내부 전하량  $q$ 는 가우스 원통 내부의 전하량이고 원통 모양의 도체는 속이 비어있으므로 가우스 곡면의 반지름  $r$ 이 원통 모양의 도체의 반지름  $R$ 보다 작을 때는 가우스 원통 내부의 전하량은 0이다. 따라서

$$\oint \vec{E} \cdot d\vec{a} = 0 \quad (36)$$

이고 전기장  $\vec{E} = \vec{0}$ 이다.

(다) 원통 외부에서 내부 전하량  $q$ 는

$$q = l\lambda \quad (37)$$

이다.  $l$ 은 원통 도체의 길이이다. 대칭성에 의해 전기장은 원통의 옆면에 수직인 방향이고 밑면에 평행하므로 가우스 원통의 밑면에서  $\vec{E} \cdot d\vec{a}$ 는 0이다. 따라서 좌항의 적분은 가우스 원통의 옆면에 대한 적분이고 전기장  $\vec{E}$ 와 면벡터  $d\vec{a}$ 는 같은 방향이므로

$$\oint \vec{E} \cdot d\vec{a} = |\vec{E}| \int da = 2\pi r l |\vec{E}| \quad (38)$$

이고 식 (35)에 의해

$$2\pi r l |\vec{E}| = \frac{l\lambda}{\epsilon_0} \implies |\vec{E}| = \frac{1}{2\pi\epsilon_0} \frac{\lambda}{r} \quad (39)$$

을 얻는다. 전기장의 방향은 원통의 옆면에 수직인 방향이므로

$$\vec{E} = \frac{1}{2\pi\epsilon_0} \frac{\lambda}{r} \hat{r} \quad (40)$$

이다.

### 서술형 3번 풀이 :

(가) 자기장은  $x$ 축 방향으로 일정하므로

$$\vec{B} = B\hat{i} \quad (41)$$

로 쓸 수 있고 주어진 그림과 같은 상황에서 점전하의 속도 벡터  $\vec{v}$ 는  $x$ 방향과  $y$ 방향 성분의 크기가 같고 속도의 크기가  $v$ 이므로

$$\vec{v} = \frac{v}{\sqrt{2}}\hat{i} + \frac{v}{\sqrt{2}}\hat{j} \quad (42)$$

와 같다. 이 때 자기장 안에서 움직이는 전하에 작용하는 힘  $\vec{F}$ 는

$$\vec{F} = q(\vec{v} \times \vec{B}) = q \frac{vB}{\sqrt{2}} \hat{k} \quad (43)$$

이다. 이 힘이 구심력으로 작용하여 점전하가 나선운동 하도록 만든다. 나선운동의 반지름을  $R$ 이라 하면

$$\frac{mv^2}{R} = q \frac{vB}{\sqrt{2}} \implies R = \frac{\sqrt{2}mv}{qB} \quad (44)$$

로 나타낼 수 있다.

- (나)  $x$ 축 주위를 회전하며 나선운동하는 점전하의 운동은  $x$ 축을 중심으로 하는 원운동과  $x$ 축 방향으로의 등속 직선 운동의 합성으로 볼 수 있다.  $x$ 축을 중심으로 하는 원운동은 구심력에 의해 발생되고  $y$ 축 방향 속력이 원운동 하는 속력이 된다. 따라서  $x$ 축 주위를 한번 회전하는 동안 걸리는 시간  $T$ 는

$$2\pi R = \frac{v}{\sqrt{2}}T \implies T = \frac{4\pi m}{qB} \quad (45)$$

이다. 점전하는 이 시간 동안  $x$ 축 방향으로 운동한다. 따라서  $x$ 축 주위를 한번 회전하는 동안 이동한  $x$ 축 방향의 거리  $d$ 는

$$d = \frac{2\sqrt{2}\pi mv}{qB} \quad (46)$$

이다.